



보도시점 2026. 5. 8.(금) 10:00 배포 2026. 5. 8.(금) 10:0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 에너지 전환의 핵심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박차

- 농어촌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제3차 바이오에너지 분과회의 개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5월 7일 오후 2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3차 바이오에너지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농산어촌의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 2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핵심 의제를 구체화하고, 가축분뇨 및 농산 부산물의 에너지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김호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전환의 성공은 전력 중심의 태양광 시스템 정착과 더불어 바이오에너지라는 또 다른 핵심 축이 얼마나 견고하게 안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분뇨부터 농산 부산물까지 원료의 다각화를 통해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바이오매스 관련 규제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영섭 바이오에너지분과 자문위원(환경공학 박사)은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 편중된 현행 원료 체계를 수산부산물, 동식물성 잔재물, 폐사축 등으로 과감히 확대하고, 발전 폐열의 스마트팜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구축 및 바이오메탄 판매 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전용우 바이오에너지분과 자문위원(에너지환경시스템 공학박사)은 우분 고체연료화의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용 REC 가중치’를 신설하고, 농산 부산물 혼합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소규모 보일러 설치 기준의 합리적 완화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농촌 지역 내 분뇨와 부산물을 스스로 처리하고 소비하는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모델’의 실증 방안을 구체화했으며, 태양광·풍력 등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바이오에너지의 가치를 재평가하였다.

한석우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위원장은 “향후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는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의제를 정밀하게 발굴하고, 국회 토론회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 :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명단 1부

담당 부서	농어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은영 (02-6260-1251)
		담당자	전문관	김태완 (02-6260-1253)



구 분	소 속	직위/직책	성 명	비 고
1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	한석우	*위원장
2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강정현	
3	(주)에너지와공간	대표	김윤성	
4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김재경	
5	(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남재우	
6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박해청	
7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윤영만	
8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이상철	
9	농어촌연구원	원장	이승현	
10	(사)지구행동	이사	임송택	
11	경기 여주 구양리	이장	전주영	
12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지현영	
13	칠성에너지영농법인	본부장	최동석	
14	(사)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홍명희	
15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홍수경	

※ 위원명단 ‘가나다’ 순